

나경원, 미국측에 총선 전 북미회담 자제 요청

# 한국당 뺀 여야 “국가 망신·매국” 맹폭

“의석 몇개 위해 한반도 평화 막아선 반평화세력”

“미국 측에 한국당 선거 도와달라고 간 것이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는 28일 미국 측에 ‘총선 전 북미정상회담 자제’를 요청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맹폭을 퍼부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혁신특별위원회에서 “어제 (나 원내대표 관련) 기사를 보고 제 눈과 귀를 의심했다”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석 몇 개를 위해 국민의 열망인 한반도 평화를 막아선 일을 성과랍시고 얘기하는 건 그들이 바로 ‘반평화세력’이며 선거 승리를 위해선 국가 안위도 팔아

먹는 매국세력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미국 당국자에게 그런 말을 했더니 국가적 망신”이라며 “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있다. 이런 것도 분간 못하는 분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한국당은 나 원내대표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만

나 “북미회담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며 “(만약 발언을 했다면) 회담은 회담이고 총선은 총선인데 이를 고려해서 개최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나 원내대표가 초당적 외교를 하러 (미국에) 간 줄 알았더니 미국 측에 한국당 선거 도와달라고 간 것이냐”며 “상상을 초월하는 제1야당 원내대표의 탈선은 절망스럽다”고 했다.

심 대표는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원내대표 직을) 사퇴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국익을 위해 노심조사를 해야 할 외교전선에서 오히려 국익을 위협하고 국민을 모욕한 데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한국당은 확실히 한국 국적 정당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는 듯하다”고 언급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총선 유불리를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에 빠뜨리려는 행위로서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때만 되면 총풍사건 등 북풍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던 한국당 전선정당의 행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안신당(가칭) 소속 최경환 의원은 찬중위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민족의 명운이 걸린 과제를 두고 선거 때는 북미정상회담을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며 “이는 1997년 대선 때 북한에 총을 쏘달라고 요청한 (총풍) 사건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는 “나라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이 선거에 유리한 환경만 조성하면 된다는 아주 못된 버릇이고 정략”이라며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말을 거둬들이라”고 요구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중 지난 20일 미국을 방문했을 때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총선이 열리는 내년 4월을 전후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그는 이후 입장문에서 “올해 방한한 미 당국자에게 그런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면서도 이번 방미 때 그런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국회 운영위 인사하는 이인영·나경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 민주 39.7% · 한국 33.4% 나란히 상승...정의·바른미래당은 하락

리얼미터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39.7%를 기록하며 다시 40%선에 근접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33.4%로 30%대 초중반으로 반등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가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2.4%p 오른 39.7%로 한 주 만에 반등하며 다시 40%선에 근접했다. 자유한국당도 3.1%p 오른 33.4%로 지난 2주 동안의 내림세를 마감하고 30%대 초중반으로 반등했다.

이밖에 정의당은 지난주 대비 0.9%p 하락한 6.3% △바른미래당은 1.1%p 떨어진 4.7% △공화당은

0.1%p 내린 1.5% △평화당은 0.7%p 떨어진 1.4%로 집계됐다. 무당층(없음·질보름)은 2.5%p 감소한 11.4%다.

민주당은 중도층과 진보층, 40대와 50대, 대구·경북(TK)과 호남, 경기·인천에서 상승한 반면, 보수층, 30대, 충청권과 서울에서는 하락했다.

한국당은 보수층, 60대 이상과 30대, 40대, 충청권과 서울, 부산·울산·경남(PK), 경기·인천, 호남 등에서 상승했다.

정의당은 지난 5주 동안의 상승세가 꺾이며 다시 6%대로 하락했고, 바른미래당 또한 2주째 하락세가 이어지며 4%대로 떨어졌다. 우 리공화당은 0.1%p 내린 1.5%로 약세를 나타냈으며 민주평화당은 0.7%p 내린 1.4%를 기록하며 다시 1%대로 하락했다.

## 홍준표 “유시민 요설 당해낼자 누가 있나”

“친북 좌파의 나라로 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8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함께 출연한 KBS1TV ‘정치합시다’ 프로그램 첫 방송만에 하자 결정한 것과 관련해 “보수·우파 진영에서 유시민(이사장)의 요설을 당해낼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유시민 전 장관과 방송토론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절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홍 전 대표는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으니 탄핵당하고 궤멸당하는 것”이라며 “지금 그들의 세상인데 그들의 생각도 모른 채 어떻게 총



선 준비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아직도 값싼 탄핵 동정에 휩쓸려 앞날을 내다보지 못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며 “생각부터 바뀌라.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 이 나라는 친북 좌파의 나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 탁현민 “조국은 친구...가장 지탄받는 사람돼도 옆에 있겠다”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28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실정법을 어겼든 그렇지 않든 내 친구”라며 친밀한 관계를 나타냈다.

탁 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인

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모든 국민·언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탄받는 인물이 돼도 난 그 사람 친구다. 가장 힘들고 아파할 때 옆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탁 위원은 ‘친구’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거듭 사용하면서 “조 전 장관과 관련한 질문들을 친구인 저에게 하는 건 좀 잔인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탁 위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싶진 않다면서 “우

린 사람에 대한 평가가 너무 급하고 빠르고 비인간적으로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일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사실로 그 사람이 평가되는 건 무척 억울한 일”이라며 “사람을 평가하는 일만큼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긴 애정을 가지고 봤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 재차 전했다.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착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